

'D-20' 미리 보는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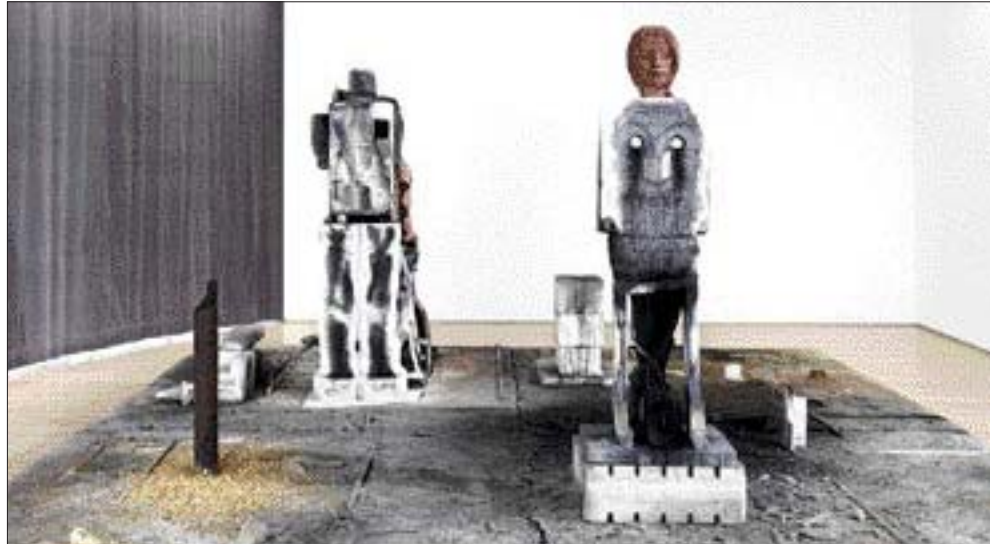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

■ '길 위에서' 섹션

# 세계 주요 전시회 36개 한 자리에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비엔날레는 '연례보고' (Annual Report)란 제목으로 오는 9월 5일~11월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지역 일원에서 66일 동안 펼쳐진다.

지난해 '신정아 가짜박사' 파문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주제없는 비엔날레'를 표방한 모험에 나선다. 지난 한해 세계 각지에서 열린 화제의 전시회를 한 자리에 모으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36개국 12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개막 D-20을 맞아 현대 미술의 향연을 미리 감상하고 개막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후마 브하바 작 '무수한 세월 동안 흠먼지 속에서 희망은 다시 샘솟는다'

## 고든 마타 클락·제라르 빈 등 초대 오쿠이 감독 기획 ... 비엔날레 '얼굴'

광주비엔날레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인 오쿠이 연위저 예술감독이 제시한 '주제없는 전시'는 벌써부터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유명 비엔날레들이 작가와 작품을 일정한 주제에 कै맞춤으로써 현대 미술의 다양한 창작 욕구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길 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의 전시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주제없는 전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준 섹션이 '길 위에서'이다. 오쿠이 예술감독이 기획한 전시인 만큼 이번 비엔날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길 위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 동안 전세계에서 열렸던 주요 전시회 36개를 초청해 한 자리에 감상하는 새로운 양식이다. 다양한 주제와 작품이 망라된 이들 전시회를 한 자리에 모아 현대 미술의 현란한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명 큐레이터의 최근 전시 기획 동향과 세계의 실험적인 작가들의 창작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1869~1951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길 위에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한 해 동안 세계의 길 위에서 열린 가장 중요한 전시를 한 자리에 모은 셈이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전시는 지난해 2월 부

터 5개월여 동안 미국 워트니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 Clark·미국·1943~1978년)'전이다. 클락은 뉴욕의 소호를 예술가들의 공동체로 만든 선구자이며 폐가옥을 반으로 가르거나, 폐공장의 벽체를 기하학적 모양으로 뚫었던 '아나키텍처(anarchitecture·건물자르기)'를 선보인 유명 예술가이다. 작업 과정이 담긴 드로잉, 사진과 필름 기록, 그리고 건물에서 잘라낸 조각들이 전시된다.

지난해 런던의 리송갤러리에서 열린 제라르 빈(Gerard Byrne·아일랜드)의 개인전도 초대됐다. 그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을 위해 지난 1961년에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제작한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조각을 재현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국내에서 열린 전시들도 눈에 띈다. '허백련'전은 허백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대표작 50여 점을 선보인 광주 의재미술관의 기획 전시회이다. '길 위에서' 섹션의 전시 장소가 광주시립미술관 1층 전시실이지만 무등산 기슭에서 차밭을 일구며 예술 혼을 불태운 허백련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허백련'전은 의재미술관에서 그대로 전시한다.

공동큐레이터인 김현진씨가 기획한 '우발적 커뮤니티'전은 지난해 계원예술대학 갤러리27에서 열렸고 잔 알타이, 니나 카벨, 루노 라고마르시노, 지미 로버트, 피진 클라터, 이주요, 이우



고든 마타 클락의 생전 작업모습.

연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밖에 데이비드 아디아에(David Adjaye·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도시들(African Cities)'전에서 선보였던 건축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후마 브하바(Huma Bhabha·파키스탄)는 줄, 찰흙, 진흙, 나무, 스티로폼으로 만든 조각품을 전시한다. 릴리 뒤주리(Lili Dujourie·벨기에)는 세라믹 조각으로 탁자와 선반을 표현한 '손에 대한 기억들(Memories of Hands)'을 출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메타세콰이어길에서 흥겨운 문화축제

담양 예술인들 15~17일

담양에 등지를 뜬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에서 흥겨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담양예술인협회(회장 국근섭)가 주최하는 제 15회 담양예술인 한마당 축제가 15~17일(오후 3시~5시)까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에서 열린다. 첫날인 15일에는 김동연(전남무형

문화재 17호)씨의 설장구, 김영희씨의 관소리, 박성애씨의 시낭송, 고서종물개의 길놀이가 이어지며 원형스님의 달마도 시연회가 열린다.

16일에는 진준환(풍물제상 국태마루' 대표)의 설장구, 정재균(담양중 2년)군의 트로트 공연, 김민호의 관소리 공연이 이어지며 놀이패 신명은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마당극 '밥이 지어리어'를 선보인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전미향의 피

리연주, 국근섭의 감성무, 송태춘의 색소폰 연주, 국하은의 가요 공연, 포크 그룹 '소리섬 사람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택견 시범도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시~5시까지 대나무 밑담초 공예, 대나무 염색 공예, 대나무 액세서리 공예, 대나무 부채 공예 등 담양 지역 특산물인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미술인 32명 광주비엔날레 명예자문위원

비엔날레 재단 위촉

제7회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의 미술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4일 '유명 미술인 등 32명을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술문화재단체 총연합 전국지회장 10명과 한국미술협회 전국지회장 11명, 국립현대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 등 전국 국·공립 미술관장 9명, 전국 사립미술관 관장 2명 등 32명이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광주비엔날레 홍보 활동과 함께 관람객 유치에 힘쓴다.

명예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술문화재단체총연합회=최성은 김인성 최남인 이희서 장남수 안수영 선거현 하철경 신상률 이종일 ▲한국미술협회=송영명 이상우 김갑남 박동교 주한경 조강훈 권대영 강병만 이병국 성낙우 김현숙 ▲국·공립미술관=김문수 유희영 조일상 이지호 김홍희 박은주 최효준 최준호 조규일 ▲사립미술관=김연진 안연민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8월의 연인' 만나세요

광장음악회 16일 오후 7시

한달에 한 차례씩 광주 금남공원(금남로 옛 한국은행 자리)에서 열리는 광장음악회 8월 행사가 16일 오후 7시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8월의 연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정찬경(바리톤), 이환희·홍선희(소프라노), 임형선(테너), 김성용(피아노)씨 등이 출연한다.

공연 레퍼토리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중 '나를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날지 못하리', 드보르작의 '투스카' 중 '달에게 부치는 노래', 오페라 '즐거운 미망인', 최형섭 곡 '그리운 금강산', 변훈 곡 '초혼', 이태리 민요 '산타루차' 등이다.



또 권경락씨가 바이올린 솔로로 열거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주며 김순홍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흥행순서로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b>메가박스</b></p> <p>구.립원역국사거리 ☎02-544-0600</p> <p>1관 다크나이트 (15세) 최고급관 2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3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4관 아기와나 (12세) 5관 다크나이트 (15세) 6관 놀놈(15세)/당신이 잠든사이(15세) 7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8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9관 다찌마와 리 (12세)</p> <p>영화 학벌 이수하면 결혼과 퀘백이 쏟아진다!(1-2008.08.21)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p> <p><b>엔터 시네마</b></p> <p>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월-E(전세)/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2관 다찌마와 리 (12세) 3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4관 당신이 잠든사이 (15세) 5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6관 님은먼곳에(15세)/눈에는눈이에는아(15세) 7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국내 최대의 주차장 300대 * ●관로 심이상영 * 여름방학특선-매일심야상영(8월10일까지) *</p>	<p>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p> <p><b>콜롬버스 시네마</b></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p> <p>1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2관 님은먼곳에(15세)/당신이 잠든사이(15세) 3관 아기와나 (12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월-E(전세)/월-E(전세)/미이라3(12세) 6관 다찌마와 리 (12세)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8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9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p> <p>* 호는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영시간별 별첨 *편 *편 *편</p>	<p>새깁는 영화신학 * www.cinua.co.kr / 1544-0070</p> <p><b>씨너스 전대</b></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2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3관 다찌마와 리 (12세) 4관 눈에는눈이에는아(15세)/미이라3(12세) 5관 월-E(전세)/당신이잠든사이(15세) 6관 아기와나 (12세) 7관 다크나이트 (15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특시 사무니(모집시-오후11시)</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고려시영 고대감동 * www.hamcinema.co.kr / 1588-9120</p> <p><b>하미 시네마</b></p> <p>전대후문 하이스포텍 ☎ 267-7777</p> <p>1관 월-E(전세)/님은 먼곳에 (15세) 2관 다크나이트 (15세) 3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4관 다찌마와 리 (12세) 5관 다크나이트(15세)/미이라3(12세) 6관 아기와나 (12세)/놀 놈 놀(15세)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8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9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p> <p>*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8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amp;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볼링장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80 * 하미 당구장</p>	<p>새로운 기쁨 * www.zimusicinema.com/www.jetcinema.co.kr *</p> <p><b>제 일 시네마</b></p> <p>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2관 다찌마와 리 (12세) 3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6관 눈에는 눈 이에는 아(15세)/님은 먼곳에(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227-1960</p>
--	---	---	---	---	--